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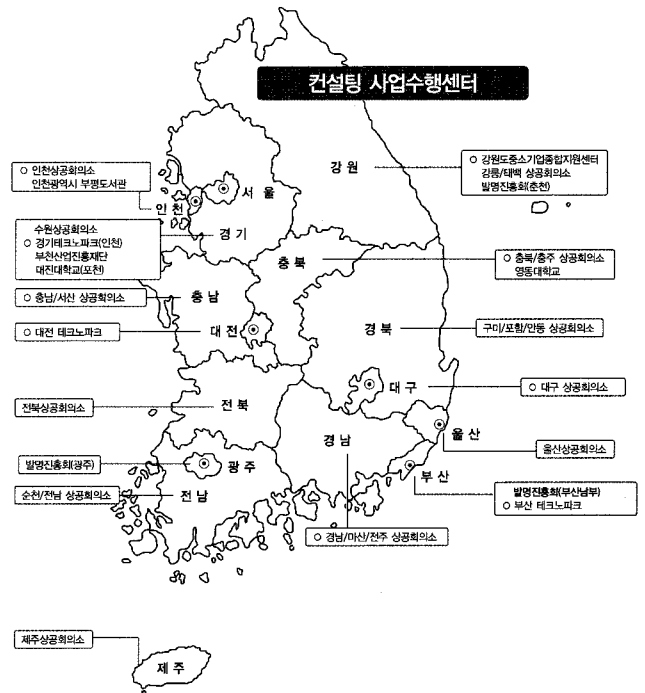


중소벤처의 기술과 특허 지킴이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www.ripcc.org



신기술 확보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시대, 그 만큼 '특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아이디어와 신기술로 사업을 시작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신의 권리와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기업은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국내외 특허를 내고 분쟁을 조정한다. 그 과정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기도하고 신기술이라 생각하고 몇 년간 투자하고 노력한 것이 이미 특허권자가 있음을 알게 되어 당황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있다. 바로 지역지식센터가 그곳이다. 특허청이 기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사업지도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지역지식센터를 방문해봤다.



○●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특허의 모든 것

지역지식센터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마련한 특허의 거점이다. 각 지역 상공회의소, 공공도서관 등에 자리 잡고 있는 센터는 눈으로 보이는 실제 외형보다 속이 알찬 정부조직이다. 센터의 출발은 1978년, 당시 특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5개 시·도 상공회의소를 지정하여 운영한 지방특허자료열람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난 2000년에 이 열람소를 '지역특허정보 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특허정보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민원상담 등을 제공했고 2004년 이를 개편하여 지역지식재산 센터를 설립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9개 지역지식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설명회, 지자체 등 발명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특허와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지식센터는 지역민에게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및 지재산 종합민원상담,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 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 촉진·활용증대 및 사업화 지원, 지역발명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 및 전시회 등 행사 개최,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자체 등 지역 발명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속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 개발과 사업예산의 대폭 확대를 통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지역 지재산 창출의 전기지로 육성하고, 권역별 발명의 달 행사 개최 등 지역 발명유관기관과의 행사 개최로 지역민의 발명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센터간 발전적 경쟁체제 구축 등을 통해 지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지식재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역지식센터 속 알짜 기능_지식재산경영단

지역지식센터는 중소기업지식재산경영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지식재산경영지원단은 지식재산 창출 등 기술 개발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지식재산경영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정보통신, 상표, 디자인 등 여섯 개 분야로 활동하는 지원단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설치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면 지자체의 'Star Company 육성프로그램'에서 발굴된 기업을 컨설팅한다. 'Star Company 육성프로그램'이란, 혁신역량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컨설팅, 선행기술조사, 시제품 제작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각 지역지식센터에 신청을 통해 컨설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지식경영컨설팅사례

자동차 램프, 변속기어를 주로 생산하는 A사는 특허전담인력 3명이 10여 년간 연구개발 및 특허창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자체 직무발명 보상시스템이 없고 특허출원 전략이 적절하지 않은 상태였다. 컨설팅 후 특허관리 절차를 전산화하여 특허전담 인력의 업무효율이 향상되었고 특허맵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의 방향을 선정하고, 신규사업 선정시 시장동향 파악과 분쟁의 사전대비 등 체계적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또 A사에 활용 가능한 정부지원제도 신청을 추진했다. 또 다른 사례로 2005년 11월 출범한 신생 벤처기업인 B사는 하천/생태 복원물을 생산하는 생명공학 벤처였다. 대표이사와 직원의 연구 의욕은 높으나, 특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연구개발단계에서 선행기술 검색이 없는 등 특허 전략이 취약했고 주력 사업분야와 관련된 식물특허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여서 사업전개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 고충을 토로했다.

사전진단을 거친 컨설팅으로 우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허의 창출, 활용, 보호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주생산품과 관련한 식물특허의 심사기준에 대한 교육 및 특허법과 종자산업법을 비교, 설명하여 연구 성과의 효과적인 권리획득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B사의 하천/생태 복원물 기술 분야 특허맵 제공 및 동향을 분석했다.

이에 주생산품 관련기술에 대해 특허맵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특허를 자체 출원하게 되었다. 사업전개 및 기술개발의 방향 설정 시부터 선행기술 검색 및 권리의 보호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연구개발을 체계화했던 사례였다.

지식재산경영컨설팅을 받은 후 B사에서 보낸 편지(부분 발췌)

중소벤처기업으로써 지식재산권 제도에 정확한 확신과 특허로드맵이 없던 우리 회사로써는 출원 업무를 대행해주는 영리사의 말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구개발의 진행과 결과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실정 일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유연함을 기회로 특허청을 방문 하다가 공지사항을 보고 신청을 하게 되었고 컨설팅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시책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는지 이렇게 생각 하였으나 접수에서부터 회사에 방문하여 사전 진단 후 적절한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하루 동안의 집체교육을 받음으로써 정말로 회사에 필요한 부분과 의문점이 충족 되었습니다.

컨설팅을 받기 전에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기업의 기술력을 보호 육성한다기 보다는, 단순하게 특허를 많이 받으면 좋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출원해서 등록하기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또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한 특허분석을 통하거나 특허로드맵이 없어 체계화된 특허관리를 못하였던 부분도 kipris.or.kr을 활용한 선행 기술 조사와 조사기법을 습득 하였으며, 컨설팅 교육을 통하여 불분명했던 특허제도의 이해와 모르고 있던 식물특허 제도와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서 활용 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B사 기술개발팀장

이처럼 지역지식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소중한 특허권의 보호와 출원을 돕고 있다. 각 지역 센터는 지역지식센터 홈페이지(www.ripic.org)에서 검색할 수 있다.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역지식센터를 찾아 특허권을 갖춰야하는 기술이나 분야가 있는지 상담해 보는 것도 2009년을 시작하는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TIP 이용하면 좋은 특허청의 지원제도



①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 기술 좋아도 홍보 약한 중소기업, 특허청 추천서로 판로개척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출연기관 및 산하 기관 등 2만70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우수 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다.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에서 연중 상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추천 심사는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실시하고 있다.

사례

● 경남 창원시에 있는 교통 표지판 제조업체인 K테크놀로지

이 회사는 얼마 전 웬만한 태풍이 불어도 신호기 지주 등 도로시설물 파손을 막을 수 있는 '스프링밴드형 표지판'을 개발해 놓고도 판로가 막혀 속앓이가 심했다.

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문을 두드려봤지만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선입견으로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를 알게 되면서 K테크놀로지는 경남 마산시와 창원시를 연결하는 마창대교 접속도로 개설공사 현장 등 6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납품에 성공할 수 있었다. 최근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풍동시험 및 국립 창원대 산업기술연구원의 구조검토를 거쳐 안전성과 효율성을 인정받아 경찰청으로부터 도입 가능인가까지 마쳤다.

● 부산의 케이아이에스티

이 회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자동형 압력조정기를 국내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2년간 협력을 통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수차례 수요기관의 문을 두드려 봤지만 선뜻 구매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이런 중 특허청으로부터 우선구매추천을 받으면서 한국수력원자력 및 기타 발전소 등의 국내 공공기관에 납품계약을 추진해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② 특허신탁관리제도

- 출원되고도 사업화되지 못하는 특허 살리기

'특허신탁관리제도'란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특정 기관에 신탁해 특허권에 관한 이전 및 기술료 징수 등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5년 기준으로 출원되고도 활용되지 못하는 특허가 전체의 66.7%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2008년 9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다수의 특허보유자에게 분산된 미활용특허들이 통합관리돼 탐색,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전문가에 의한 특허 관리와 거래로 미활용특허의 이전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③ 특허법률구조지원

- 대기업과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

특허청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소기업에 대하여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쟁시 심판의 경우 200만 원까지, 소송의 경우 500만 원까지 대리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